

남원시의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일본정부가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를 규탄하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윤지홍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은 일본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 한국의 강제징

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윤지홍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자유롭

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남원시민들은 일본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의원 일동은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축제, 전국 최고 축제 만든다

심 민 군수, 주요프로그램·음식관·국화재배·교통 등 준비상황 점검

임실군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9 임실N치즈축제를 전국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2일 간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중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프로그램 내용, 향토음식관 운영, 국화재배 관리, 교통 및 주차대책 등 축제운영과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각 부서별 전담사항을 세밀히 보고 받았다.

임실N치즈축제는 그 간 직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 속에 개최 4년 만에 누적 방문객 110만명을 돌파하고, 문화관광체육부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70여일 정도 남은 축제 준비 기간 동안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

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가 역대 최대 방문객이 예상됨에 따라 셔틀버스 노선 신설, 교통전문요원 증원, 행사장 주변 도로정비 등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임실군 맛 집으로 선정된 22개소에 향토음식관 부스 참가 자격이 부여된 만큼, 한 장소에서 임실군의 모든 맛 집을 경험할 수 있는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한우안소를 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천만

송이 국화꽃 향연과 국가대표 왕치즈 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문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꼼꼼히 마련할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부서별로 전담 세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도록 하고, 축제 방문객 입장에서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안전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항목별 체납 요인 해결과 각종 복지혜택 및 보조금과도 연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시민원탁회의 성료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강당에서 시민 100여명과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남원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원탁회의에서는 행정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를 선정해 시민의 참여관한을 넓혔다.

이날 회의는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운영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도시 만들기 ▲농업인 복지! 이것이 필요하다 ▲유기동물, 예방과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아이 놀이 환경 바꿔 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한 생활체육은? ▲친절한 남원시청이 되려면 등 7개

의제로 진행했다.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도시 만들기 팀에서는 아동병원 24시간 운영, 출산 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농업인 복지! 이것이 필요하다 팀에서는 농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원가보장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시민의발, 시내버스 운영은 어떻게? 팀에서는 버스의 완전공영제, 버스노동자의 교육 및 노동자 충원을, ▲유기동물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팀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동물 학대의 실질적인

규제 등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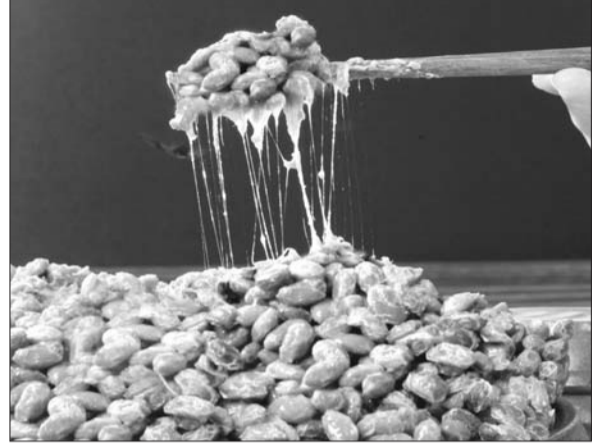
남원시는 이번 의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할 경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은 “하나의 문제를 두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설명해주어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제안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한국형 유용균주 활용 청국장 치매예방 효능 입증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호서대학교 공동연구

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 이하 진흥원)이 토종발효미생물을 활용한 한국인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수입산 발효미생물을 토종 식물성 유산균 및 식물성 고초균 프로바이오틱스로 대체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5개의 대학과 3개의 연구기관은 새롭게 발굴한 프로바이오틱스 고초균을 적용한 청국장의 피부질환개선, 항비만, 면역증강, 항당뇨, 항염증 등 청국장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진흥원은 호서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순창군에서 전통발효법으로 제조한 고추장에서 바실러스 2종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해 발효한 청국장 이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새롭게 발굴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국내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에 2종의 바실러스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신경계 질병이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노인성 신경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이 치매에 대한 예방 효능을 입증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유기질비료 수요농가 대상 추가 지원

순창군이 하반기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에 나선다.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국비 1,000원과 군비 600원 등 총 1,6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매년 국비 지원액이 감소하며 배정량이 줄어들어 농업인들로부터 지원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했

으며, 잔액인 7천여만원을 활용해 하반기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작물은 가물무·배추와 추파용 맥류, 사료, 녹비작물 및 동절기 과수에 시비 할 농업인들이 신청대상이며, 8월 16일까지 유기질비료의 종류와 신청량 등을 기재해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제출하거나 마을이장 등이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취합해 신청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임실, 폭염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임실군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을 비롯한 4개관(임실·오수·관촌·강진) 복지팀은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26가구를 찾아 돌본다.

군은 여름철 폭염 등을 대비하여 7월 한달 간을 폭염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집중 방문 상담기간으로 정했다.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권역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대상가구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 안부확인과 함께 폭염 대응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집중기간 동안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통합사례관리가구와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물품 등을 배부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생활실태도 점검하여 공적지원, 민간복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보건소, 소방서 등 기관과도 협력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군 희망복지지원단도 지난 18일부터 통합사례가구 14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여름용 이불세트를 전달하고 생활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은 “폭염을 대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지역의 취약계층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장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남원시는 폭염, 가뭄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 및 장미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토사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1단계는 오염행위예방 및 계도 단계로 배출업소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한다.

2단계(7~8월)는 반복 위반업소, 폐수 배출시설,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2개반 4명으로 특별감시반을 구성, 상수원 인근 하천지역 환경오염행위, 폐수·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순찰 강화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및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지원 등을 고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